

INVESTORS OF INSIGHT

7월 경제 동향	1면
지표로 살펴보는 한국 경제	2면
뜨거운 감자 - 유로의 위기(2)	3면
경제 기사 풀어보기	4면
참~ 쉬운 경제 알기 - 금리(2)	5면
책 소개	6면

여러분의 재정목표달성을 위한
'Polaris'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 062) 431 - 6339
<http://www.kjecc.or.kr>

□ 7월 경제 동향 - 긍정적 분위기의 고조

기준금리 0.25%p 인상

대기업들의 사상 최대의 실적 발표 이어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

지난 7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올렸다. 2%라는 역대 최저의 금리 기조가 끝난 것이다. 그동안 지나친 저금리로 인한 버블을 우려한 학계는 이제라도 금리를 올린 것에 안도하였지만, 아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가계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 금리인상의 속도를 낮춤으로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리인상이 발표되자 자산시장의 반응은 비교적 담담했다. 채권시장이 잠시 출렁이긴 했으나 환율시장의 변동성이 줄고 주식시장은 강한 상승을 보였다.

2분기가 끝나자 사상최대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함께 고환율, 역샌드위치¹⁾

효과, 경기부양책, IT와 가전제품의 수요확대 등의 수혜를 받은 결과이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해왔지만 투자자들

	잠정 영업이익	전년동월비
삼성전자	5조원	+87.26%
POSCO	1조8360억원	+1101%
현대차	8633억원	+31.4%
LG화학	2조2346억원	+69.1%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기 지표들은 확연히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소비가 둔화되고 부동산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미국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던 소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버냉키 의장이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는 등 경기지표는 암울한 편이다. 유럽은 그동안 우려되었던 재정위험의 정도는 줄었지만 이미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경기둔화는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출비중이 8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홀로 고공비행을 하긴 힘들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경제의 저력을 충분히 느꼈다면 앞으로는 경기둔화가 단기 조정으로 마무리 될지, 아니면 좀 더 긴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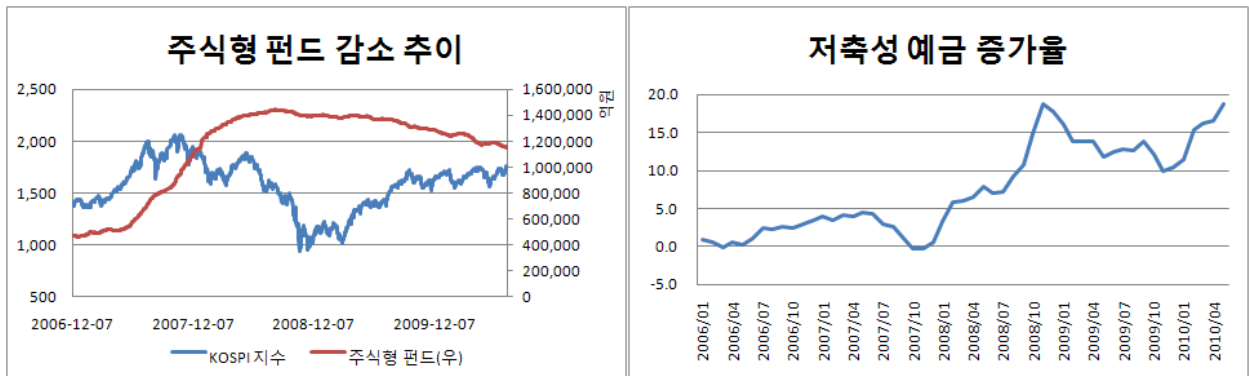
다음 장 '지표로 보는 한국 경제'에서 좀 더 살펴본다.

1) 우리나라 제조업이 일본의 선진기술력과 중국의 가격경쟁력 사이에서 고전한다는 샌드위치 위기론과 대비되는 것으로, 일본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중국에 비해 월등한 품질로 수혜를 입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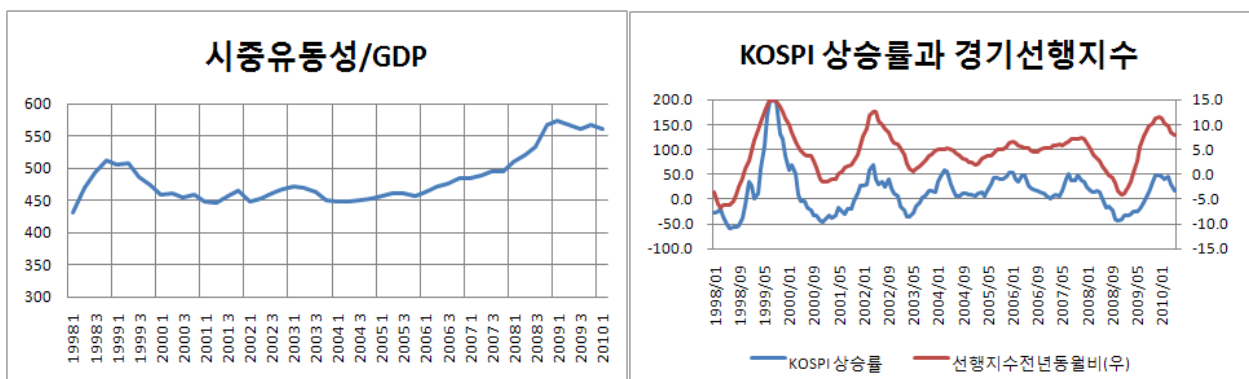
□ 지표로 보는 한국 경제

KOSPI 지수는 1년째 1500~1700선에서 박스권 형성 시중 유동성 VS 경기 둔화

- KOSPI 종합지수가 1년 가까이 1500~1760선에서 횡보하다 최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으나 상승률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기 이후 지수가 반등하는 동안 주식형 펀드는 꾸준히 환매되고 있다. 이달 들어 1700을 넘어서자 다시 환매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지수의 상승에 꾸준한 부담이 되고 있다. 환매된 돈들은 경기가 둔화되고 증시의 상승률이 주춤하자 안전자산인 예금상품에 몰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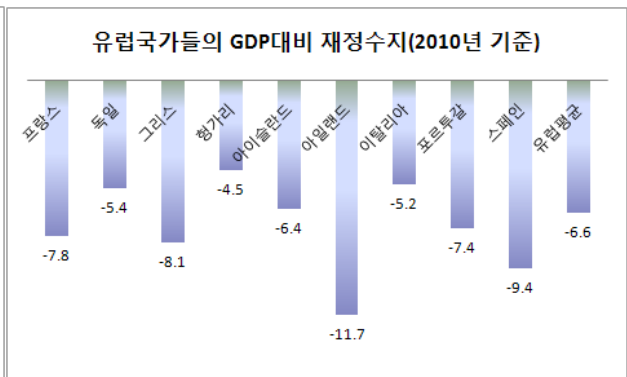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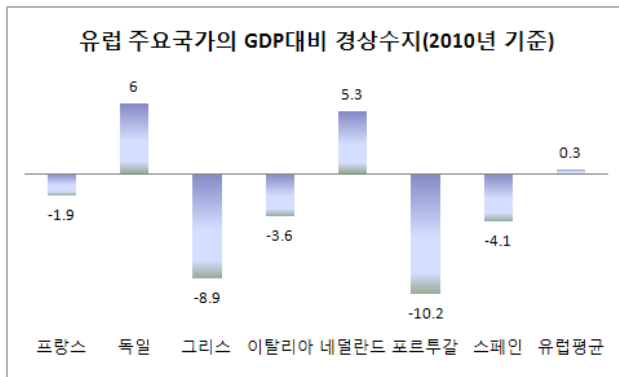
- 한편 환매된 자금 중에는 최근 유행하는 랩어카운트를 통해 재유입기도 한다. 증시의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M2)이다. 2006년부터 증가세를 보인 유동성은 금융위기를 겪으며 주춤한 상태이지만 이전과 달리 해소되지 못하고 여전히 넘치고 있다. 하지만 KOSPI 상승률은 과거부터 주로 경기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둔화세가 단기 조정에 그치며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본격적인 힘을 발휘 수 있다고 본다.



□ 뜨거운 감자 - 유로의 위기

② 보이지 않는 위험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세계경제가 불황에 들어서자 유럽통화동맹(EMU)의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첫째, 유럽중앙은행에서 독일 중심으로 결정한 낮은 기준금리가 다른 회원 국가들에게 적절한 기준금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의 명목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보다 낮은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되고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둘째, '환율의 조기 경보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한 나라에서 경기과열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문제로 글로벌 자금의 유출이 일어나도 단일통화를 사용하니 환율의 변동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어떠한 경기변동이 발생해도 알기가 어려웠고, 환율이 변동해주어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속으로 끓어만 갔던 것이다.



각 자료 : OECD

유럽연합이 이런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출범 때부터 각국에 재정정책의 자율권을 주는 대신, 재정적자가 GDP의 3% 이상 넘는 것을 막아왔다.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재정운용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차단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번 그리스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경기호황에 취해 방만한 운영을 해왔고, 이로 인한 유럽의 평균 재정적자의 수준은 GDP대비 6.6%를 기록해 규정된 3%의 두 배를 넘기게 되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은폐·조작해 오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다음호에 ③ '위기의 해법과 EMU의 미래'로 이어집니다.

□ 경제 기사 풀어보기

금통위 기준금리 0.25%p 인상...출구전략 신호탄 [7월 9일 한국경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개월째 동결했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를 지난해 2월 2.5%에서 2.0%로 내린 다음 16개월간 이뤄진 역대 최장 동결 행진이 마침표를 찍었다.

당초 8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 6%가량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 회복세가 빨라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구전략의 신호탄으로 분석됐다. 유럽 지역 재정위기와 미국,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불안 요인이 있지만 세계 경제의 경기 이중침체(더블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통화위원회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에서 2.0%까지 내렸었다. 아직은 세계경제가 불안함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지만 점차 회복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높은 수치를 보여줌에 따라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 상반기 상승률은 2.7%로 한은의 전망치 2.5%를 넘어섰다. 연간 상승률도 한은이 예상한 2.6%를 뛰어넘는 3% 안팎이 전망된다. 한은은 하반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 공공요금도 인상되면서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달 한 강연에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 인플레이션이 나 자산가격 급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금통위는 6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 '물가 안정 기조'를 추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5%에서 5.75%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권고했다.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사상최저의 금리를 16개월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한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 기준금리 인상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가 경제성장률과 향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발언을 해 앞으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기준금리가 오름에 따라 예금 및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시중의 자금이 단기 예금상품에 몰리고 있는 반면, 부채가 있는 가계와 중소기업은 이자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자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를 침체시키지 않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금리 인상 속도를 바라고 있다.

□ 참~ 쉬운 경제 알기 - 금리(2)

'정기예금 금리 연 ○%' 또는 CMA이자율 연 ○% 등 금융상품의 이자율을 표기한 문구를 많이 볼 수 있다. 만약 100만원을 1년 만기, 이자율이 4%의 정기예금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로 4만원의 수익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최대 위험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가 얻는 수익은 달라지게 된다.

- 물가상승률

국가의 경제가 매년 성장하게 되면 그 경제를 뒷받침하는 돈의 양, 즉 통화량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통화량이 점점 늘어나면 이에 맞추어 물가도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2%일 경우 100만원하는 TV가 1년 뒤 102만원으로 상승했다는 의미이다.

- 실질금리

겉으로 보이는 '명목'적인 금리가 아닌 실제로 우리가 이득을 보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사례를 들어보자. 100만원의 현금을 가진 A씨가 100만원을 주고 TV를 살지 고민하다가 1년 만기 4%금리의 정기예금을 가입해 1년 뒤 104만원으로 불렀다. 그리고 다시 이 TV를 사려고 했더니 102만원으로 올라있었다. A씨가 이 TV를 사게 된다면 A씨는 수중에 2만원을 남기게 되고 원금 100만원에 대해 지난 1년간 2%의 이자를 받은 셈이 된다. 이 과정을 아래의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은행에 저축하면 손해?

위의 공식을 보면 명목금리가 낮고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은행에 넣어놓고 1년을 기다렸더니 실제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2%가 아닌 5%가 되어 TV가격이 105만원이 되었다면 은행에서 명목금리로 받은 104만원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더욱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처에 돈을 맡기게 된다. 현재 대형 증권사들의 CMA금리는 약 2.5%정도이고 최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이다. 현재 (명목)금리만 생각하고 CMA에 예치해 두었던 사람이라면 연 -0.1%의 손해를 입는 것으로 보다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 책 소개

1) 소개

투자의 세계는 인간 행동의 축약판이다. 수많은 메커니즘과 이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광범위한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 『미래의 투자』는 통찰력 있는 투자자가 되는 법을 설명하고, 선택과 투자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다양한 분석 기법을 제시한다.



저서명 : 미래의 투자

저 자 : 마이클 모바신

역 자 : 정명수

출판사 : 위즈덤 하우스

2) 서평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결과는 중요하다, 그러나 오직 결과만 놓고 판단을 하면,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부담해야 할 위험자체를 회피하게 된다."
- 로버트 루빈 장관 -

투자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우회적으로 일침을 가하는 동 저서는 철학과 심리학, 사회학, 물리학, 수학, 경영학 등 실로 다양한 분야의 지적 교류를 통한 하나의 결정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싶다. 이 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4장의 복합적응시스템으로 바라본 투자세계이다.

그렇다고 모든 초점이 투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상 속에서 접하는 현상과 결과들에 대해 너무 성급한 인과론적 결론도출의 함정에 빠지는 우리들에게 의사결정 및 사고의 시스템을 제공해 준다. 중간 중간에도 언급되었지만 투자세계에서 (일상생활에서 선택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너무 결과에만 집착해 있는 우리들에게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동 저서는 "지혜와 성공의 투자학" 과 함께 읽어보면 좋은 통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